

書懷奉別兩天使大人

悠悠征旆駐安州

浩渺風烟未易收

綠蟻滿斟須盡醉

驪驅一唱動離愁

鴨江日暖臨蛟室

鶴野雲低望蜃樓

爲問翱翔霄漢上

有時能憶此遊不

글로 두 使臣을 作別하면서

悠悠히 떠나는 나그네 길은 안주(安州)에 머무르고 있는데

넓으나 넓은 風景을 모두 기록(記錄)하기는 어렵구나

전아니술에 뜬 밤알은 醉興을 돋우고 있는데

청토마 크게 우니 작별해야 할 서글픔이 생기는구나

암록강(鴨綠江) 변 햇살이 따듯하니 상서로운 기운은 방에 넘실거리고

학(鶴)이 날으니 들에는 구름이 오락가락 하는데 저 멀리 신기루(蜃氣樓)가 아른거리네

창공(蒼空)을 훨훨 날아가는 저 새에게 물어나 볼까

행역나 오늘 이 자리를 잊지는 않으니 시겠지